Sumitomo 에폭시수지 공장“ 폭발 ”

삼성 · 금성 · 대우 등 반도체 타격 우려…반도체용 연간 6200톤 94% 수입 사용

일본 스미토모(주우)화학의 에폭시공장이 지난 7월4일 폭발, 에폭시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이 사고로 스미토모화학은 당분간 에폭시수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연간 1만4000톤의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1만톤은 반도체 제조용 등 특수 용으로 대부분 일본 및 동남아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동남아지역의 반도체 제조업계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도 삼성 · 금성 · 대우 등 관련업계의 에폭시수지 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92년 국내 반도체 제조용 에폭시수지의 수입은 6600톤 5352만9000달러인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일본에서 수입된 물량은 94%인 6200톤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은 대부분 스미토모화학에서 공급, 국내 반도체관련업계에서는 공급부족은 물론 가격앙등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폭시수지업계에는 큰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2년 국내업계의 에폭시수지 수출은 1만2916톤으로 2798만88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반도체 제조용은 148톤으로 1%내외를 차지하여 이번 폭발사고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폭시수지 가격은 로칼가격이 KG당 2.20달러, 내수가는 2,3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 특수용도의 에폭시수지 가격의 약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에폭시수지 수요는 약20만톤에 달하고있는데 Base Resin은 스미토모화학의 점유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3/7/5>